

수익대 '짜깁기 교재' 학원가 불법유통 수사

외국어학원 10여곳 인쇄업자와 손잡고 수십여종 판매 서점주인들 피해 주장...광주동부경찰, 물증 확보 나서

광주 시내 학원가를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출판된 서적이 아닌 이른바 '짜깁기' 불법 교재 수익원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광주동부경찰서 인근 일부 외국어학원의 경우 특정 인쇄업자와 손잡고 정상 교재에서 임의로 문제를 추출, 편집한 부교재를 서점가에 유통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와 함께 서적 유통 질서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동부경찰은 동부서 인근 일부 외국

어학원들이 특정 인쇄업자와 함께 수십종에 달하는 외국어시험 부교재를 유통하고 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서적들이 정상 출판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곳곳에 들어간 외국인 관련 삽화 등으로 미뤄 정상 출판된 외국어 서적의 문제 일부를 임의로 빼내 편집한 불법 교재로 보고 구체적 물증을 확보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상적인 출판 절차 없이 불법 짜깁기 돼 유통되는 외국어 부교재

는 수십여 종에 달하며, 이에 가담한 외국어학원만 10여 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부 외국어학원은 그동안 학원 내에서 학생들에게 자체 판매했던 것과는 달리 시중 서점을 통해 버젓이 불법 짜깁기 된 서적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내 외국어학원 상당수가 자체적으로 부교재를 불법 인쇄, 유통하다 보니 저작권 침해 논란과 별개로 서적 유통질서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당장, 정상적인 외국어서적만을 판매하는 서점 업자들은 불법 짜깁기 된 외국어 서적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상 외국어시험 교재가 2~3만원 선이라면 학원에서 자체 만들어 유통한 교재는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판매가 시원찮다는 것이다.

서점 업자들은 "저작권 위반 소지가 다분한데다 세금 탈루 의혹도 제기되는 불법 외국어서적이 판을 치다 보니 정상적으로 출판된 서적 판매만을 고집하는 우리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동부서 인근 학원들이 학생들에게 팔아치운 불법 교재만 해도 수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법 교재 판매를 해온 것으로 지목받은 외국어학원 관계자는 "학원 강사가 기존에 출간한 서적에서 좋은 문제만을 골라 자체 편집해 출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작권법 위반 등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들을 상대로 좀 더 정확히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아직도 이런 학교가...

스커트 길이 수행평가 반영...심화반 학생만 반장 출마 자격

광주교육청, 전근대적 행태 적발

광주 교고의 전근대적인 운영 행태가 교육청 감사로 드러났다.

5일 광주시교육청이 밝힌 '특정(교무·학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A교고는 지난해 수행평가 스키치 영역에 머리카락 길이와 블라우스의 단정함, 스커트 길이, 실내화 청결 등 부장 상태를 집어 넣었다. 스키치 수행 평가에 스커트 길이가 무슨 상관이 있는 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B교고는 지난해 1학기 학급 임원 선거에서 이른바 심화반(우열반) 학생들만 출마하도록 했다. 성적에 따라 반장 선거 등 임원 출마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아예 반장 출마가 불가능하도록 막았다는 얘기가.

또 2학기에는 학급에 따라 심화반 학생들에게만 출마 자격을 주거나 모든 학생에게 출마 자격을 주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금지하고 있는 심화반을 운영하는 학교도 밝혀졌다. C교고

의 경우 지난 2014학년도 사교육절감행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면서 1·2학년 학생 중 성적 우수 학생(1학년 35명·2학년 35명)을 중심으로 국·영·수 심화반을 꾸려 1년 간(2014년 3월~2015년 2월) 평일 1시간, 토요일 3시간씩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D교고는 독서논술대회를 진행하면서 51명의 참가자 중 25명이 0점을 받는 등 난이도 조절에 실패, 문제해결력·창의성 신장을 위한 경시대회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F교고는 2012년도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추천서 제출항목이 없는 데도 추천서를 제출한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가 하면, 외국어 교사가 아닌 데도 외국어학 부가점수를 주는 등 임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아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최종 합격해 임용됐다. 교육청은 이들 9개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의·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택지개발 배임 혐의' 전남개발공사 전직 간부들 내일 선고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남개발공사 전직 간부들의 1심 선고가 7일 이뤄질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법조계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무안 오통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책임감리 용역을 발주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한 전모씨와 개발본부장을 지낸 또 다른 전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7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지난 2104년 12월 전남도가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1개월만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전남개발공사 자체 인력을 활용한 직접 감리가 가능했는데도 책임감리를 발주해 40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두 사람의 변호인 측은 전남개발공사 자체 인력으로는 직접 감리가 불가능했

고, 업무 책임자로서 부실시공을 막고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달고자 책임감리를 했다고 배임 혐의를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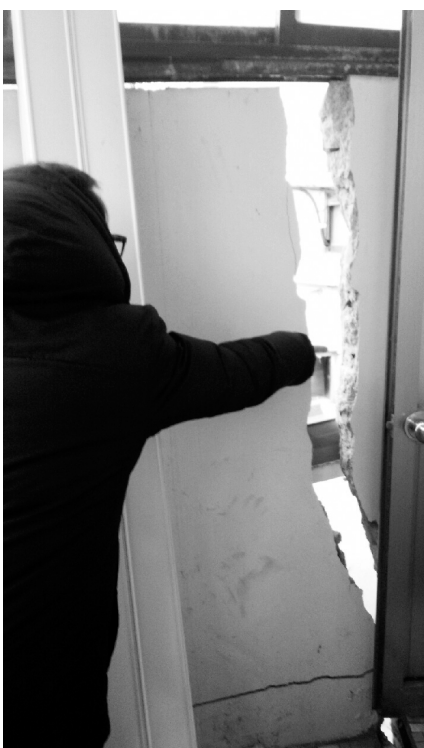
전남도는 앞서 전남개발공사를 감사한 결과, 오통지구 택지개발 1단계 사업과 관련해 부당하게 책임감리용역을 해 40억 1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판결과에 따라 파장도 예상된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 전모 사장 등 두 사람은 법적 책임과 함께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무리한 전남도의 수사의뢰와 검찰의 기소가 도마 위에 오르고, 특히 전남도는 '동료직위'를 곤경에 빠트렸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에서 거의 '일상화'되다시피한 외부 용역 발주에 대한 공무원(공기업 직원)의 역할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현석기자 chadol@

벽면 짝짝...공사 현장 인근 주택 날벼락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상가 재건축 현장과 맞닿아있는 주택의 벽면이 3cm 이상 갈라져 곧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다. 피해 주민 위철량(70)씨는 "건축주 측이 지상 5층짜리(연면적 1562㎡) 규모의 건물을 지난해 10월 새로 짓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집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도, 건축주 측은 꼼짝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균열 피해를 입은 2채의 주택 소유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지난 10월부터 공사는 멈춘 상태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한편, 경찰은 이날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이나 신체 압박 등 범죄 피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프로포폴을 과다투약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숨진 간호조무사 집에 다량의 프로포폴...유출 경로 추적

숨진 채 발견된 간호조무사의 집에서 다량의 프로포폴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약물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이다. 링거 주사를 손등에 꽂고서 숨진 채 발견된 간호조무사의 주변에선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 41병(각 20㎖)이 발견됐고 이중 26병이 비어있었다.

광주광산경찰은 숨진 간호조무사 A(여·40)씨가 근무했던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프로포폴 15병이 없어진 사실은 확인했으나 나머지 26병에 대해서 유출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일부 약품의 제품번호와 유통기한이 일치하고 A씨가 업무상 프로포폴 보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접근할 수 있던 점을 토대로 A씨가 병원에서 프로포폴

을 빼돌린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또 A씨 집에서 발견된 약품 중 일부는 병원에서 사라진 것과 유통기한이 다른 것으로 확인돼 입수 경로를 파악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5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살던 A씨는 지난달 31일 퇴근 후 이날 오전 출근할 예정이었는데도 나오지 않자 동료는 경찰과 함께 그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이날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이나 신체 압박 등 범죄 피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프로포폴을 과다투약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의사 명의 빌려 병원 차린 뒤

보험금여 129억 탄 50대 구속

목포경찰은 5일 의사 명의를 빌려 자신의 건물에 병원을 차린 뒤 100억원이 넘는 보험금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대상 사기)로 목포 석현동 한 요양병원 건물주 A(5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의사 자격증을 빌려준 B(5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4월께 의사 B씨와 공모해 자신의 건물에 요양병원을 차린 뒤 B씨는 병원장으로, 자신은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최근까지 129억원의 보험금여비용을 청구해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여비용의 환수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사람 탄 차량 호수에 빠졌다"

무안서 신고...경찰 수색 나서

사람이 탑승한 차량이 담수호에 빠졌다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119가 수색 중이다. 5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무안군 해미면 용화리 인근 담수호에 승용차가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나모(72)씨는 경찰에서 "뉘시를 하고 있는데 하천 옆 농로에 정차해 있던 흰색 승용차에 사람이 타더니 갑자기 차가 호수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119구조대 30여명은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날 오후 8시 현재까지 정확한 차량 위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4일 해남과 신안에서 가족이 탑승한 승용차가 잇따라 바다에 빠져 탑승자 6명 전원이 숨졌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채팅 여성 사위하는 틈 타 돈 훔쳐 달아난 30대男 '덜미'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모텔에 투숙한 뒤 여성이 사위하는 틈을 타 현금만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

○...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식당 종업원 A(31)씨는 지난달 6일 새벽 4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의 한 모텔에서 불과 1시간 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B(38)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

의 지갑에서 10만원을 꺼낸 뒤 호텔방을 찾다 가는 것.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입수, 자진 출석을 종용하자 마지 못해 경찰조사에 응한 A씨는 "12월이라 마음이 뒤숭숭해 B씨와 '급만남'을 갖고 바로 모텔로 끌려가다시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모가 별로여서 돈만 챙겨 나왔다"고 진술.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 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NPL대출 전국 특수 물건 90%한도 6.5%~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중도상환 無

화순RPC공장채권매각

토지 2070평 건물 449평 기계기구일체 7억상당
 채권최고액 11억4천만원 전액 배당금 확보 됨.
채권매각가 9억원 문의 담당자 : 010-4557-3034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